10.35768/taegak.2022..38.005

용성 『륙조단경요역』의 구성과 주해 고찰

김호귀*

• 목 차 •

Ⅰ. 서언

Ⅱ. 『륙조단경요역』의 구성 형식의 특징

Ⅲ. 『단경』에 대한 주해 내용

Ⅳ. 결어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교수.
ⓒ 『大覺思想』 제38집 (2022년 12월), pp.157-186.

한글요약

용성은 전통의 덕이본『단경』에 대하여 한글번역으로『륙조단경요역』을 출간하였다. 제명은 요역(要譯)이라고 말했지만, 단순히 한글의 번역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본문의 몇 군데에 해당하는 곳에는 용성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보여주는 주해를 붙였다.『요역』에는 크게 구성 형식의 측면에서는 다섯 가지의 변형을 가하였고, 주해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다섯 군데에 걸쳐 개인의 견해를 보여주었다.

구성 형식으로는 첫째는 처음 부분에 도입하는 대목을 설정, 둘째는 본문의 내용을 13분과로 설정, 셋째는 기존의 내용에 첨가와 생략을 가함, 넷째는 본문의 순서를 내용과 결부하여 재배치, 다섯째는 원문을 전면적으로 생략하고 한글 위주의 번역본을 만들었다.

내용에 대한 주해의 측면은 첫째는 유정과 무정에 대한 전법게송을 사(事)와 이(理)의 측면으로 이해, 둘째는 풍동(風動)과 번동(幡動)과 심동(心動)의 문답에 대해서 성(性)과 상(相)과 본심(本心)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 셋째는 정혜(定慧)에 대한 용성 자신의 견해를 보여준 점, 넷째는 전념과 후념을 즉심 및 즉불과 관련시켜 이해하고 물을 비유로 내세움, 다섯째는 삼신과 사지를 관련시켜 설명한 점이다.

용성의 한글의 번역은 덕이본『단경』에 의거하였지만, 분과의 구성형식과 용성 자신의 주해를 가미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번역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일명 용성본『단경』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다.

주제어

륙조단경요역, 13분과, 전법게송, 풍동번동심동, 삼신, 사지, 정혜

Ⅰ. 서언

『육조단경(六祖壇經)』은 중국 선종의 제6조 대감혜능(大鑑慧能: 638~713)의 어록에 해당한다. 『단경』은 중국 선종사에서 초기선종 시대에 출현한 어록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종이 출현한 이후로 선사상의 측면에서 『단경』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어떤 문헌보다 큰 영향을 끼쳤다.

『단경』은 또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달마어록』과 더불어 초기선종의 선어록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초기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조사선법의 형성에 초석이 되었는데, 이점은 이후 『신회어록』을 비롯한 본격적인 어록의 출발이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경』은 그에 걸맞게 숱한 개판을 통하여 어떤 선전(禪典)보다도 많은 판본으로 출현 되었다. 그와 같은 수많은 『단경』의 판본 가운데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은 덕이본(德異本) 및 종보본(宗寶本) 『단경』이다.

본 고에서는 덕이본 『단경』[1]을 계승하여 용성진종이 한글로 번역한 『륙조대사요역』에 대하여 구성 형식의 측면과 본문과 별도로 용성이 가한 주해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용성은 우선 처음의 도입 부분에 별도의 과목을 설정하여 『륙조단경요역』을 번역한 대의를 보여주었고, 본문의 내용은 기존의 분과와 다른 새로운 분과를 설정하였으며, 본문에 대하여 몇 군데에 걸쳐 첨가한 대목과 생략한 대목을 보여주었고, 본문의 내용을 가감하면서 재배치하였으며, 전체를 한글 위주로 번역을 하였고, 용성 자신의 견해를 주해의 성격으로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구성형식의 측면에서 드러난 다섯 가지 경우와 내용의 주해측면에서 드러난 용성의 주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단경』에 대한 용성의 이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慧能硏究』, 東京: 大修館書店, 1977.

Ⅱ. 『륙조단경요역』의 구성형식의 특징

『육조단경』에 대하여 용성진종은 나름대로 이해하고 번역하여 『육조단경요역』을 펴냈다. 이것은 용성진종의 『각해일륜』의 목록에는 부록 형태로 「부륙조단경(附六祖壇經要譯)」이라는 제명으로 수록되어 있다.[2] 이것은 『각해일륜』의 제4권(覺海日輪卷之四)에 해당한다. 그리고 서두에 한글과 한문의 두 가지 형태로 「대각교 용성당 진종 백상규 역술 大覺敎 龍城堂 震鐘 白相奎 譯述」이라고 표기하고 있다.[3] 여기에서 용성은 기존의 『단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거기에 가한 구성 형식에 대하여 전통적인 그대로 수용하여 번역하지 않고 몇 가지 변형된 모습을 취하였는데, 다섯 가지 점에서 용성 나름의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① 첫째는 용성은 『단경』을 촬요하여 번역하면서 자의적으로 도입 대목을 설정하여 분과로 삼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일 '첫채는 단경을 역술하여 본교에 전도과로 한 리유를 설명함'의 대목에는

---

2) 『백용성대종사총서』 10, 원문 大覺思想(1), 백용성대종사총서간행회, 동국대출판부, 2016, pp.615-664. 이에 대한 현대어 번역은 『백용성대종사총서』 2, 대각사상, 백용성대종사총서간행회, 동국대출판부, 2016, pp.412-461 수록. 이하 『백용성대종사총서』 10, 원문 大覺思想(1)은 『총서』로 약칭함. 이에 대한 연구논문으로는 신규탁, 「『六祖壇經』과 龍城禪師」, (『대각사상』 12집, 2009)가 있다. 여기에서 신규탁은 용성선사가 『육조단경』을 만나게 된 인연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어서 『육조단경』에 대한 용성선사의 『요역본』과 『덕이본』을 대조하면서, 그 소감을 간단하게 [평가]라는 대목을 붙여 소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관점을 달리하여 『륙조단경요역』을 구성형식과 주해내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용성의 번역본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용성의 견해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3) 『覺海日輪』은 그 말미에 보면 2956년(1929)인 기사년 11월에 탈고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후 이것을 1930년 3월 15일에 1921년 봄에 조직된 三藏譯會를 통해서 大覺敎堂에서 출간한 것이 오늘날 전하고 있다.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5집, 대각사상연구원, 2002, p.115.

> 룡성이 조년에 발심하여 단포자 일납자로 청천에 뜬 학과 같이 사해팔방에 훨훨 단니더니, 대각응세 이천구백십년 사월팔일에 경긔도 양주군 고령사에서 비로소 단경을 얻은 후로, 항상 이 경으로 선생을 삼아 도를 닥가 오기로, 이제 우리 대각교에 정신골수(精神骨髓)를 삼아 광제중생하기를 목적하고 이 경을 번역하노라.[4]

이 대목은 본『륙조단경요역』에 대한 전말을 짐작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용성은 특별히 전통적으로 전승해온『단경』을 접하고 있음을 은근히 노출하고 있다. 고래로 한국에서 유통된 판본으로는 고려판에 해당하는 연우병진본(延祐丙辰本) 곧 덕이본『단경』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5] 판본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찍이 보조 지눌도『단경』에 발문(跋文)(1207)을 붙인 적이 있었다.[6] 기타 한국에서 개판된 판본은 8종 혹은 9종이 있다.[7]

한편『단경』은 성종 13년(1482)부터 연산군 2년(1496) 사이에 작자 미상의 언해본이 간행된 이래로[8] 용성의 번역이 한글본으로 처음에 해당한다. 기타 주해서로는 백파긍선(白坡亙璇: 1767~1852)의『육조대사법보단경요해(六祖大師法寶壇經要解)』(1845)도 있다.[9]

여기에 인용된 대목을 통해서 용성의 구도역정,『단경』을 만나게 된

---

4)『총서』, p.615.

5) 김지견 편,『六祖壇經의 世界』, 민족사, 1989, p.414.

6)『韓佛全』4(739中-下).

7) 고려 熙宗 3년(泰華七年本, 1207), 고려 忠烈王 36년(大德四年本, 1300), 고려 忠肅王 3년(延祐三年本, 1316), 조선 成宗 10년(成化十五年本, 1479), 조선 明宗 13년(嘉靖三十七年本, 1558), 조선 宣祖 7년(萬曆二年本, 1574), 조선 肅宗 29년(康熙四十二年本, 1703), 조선 高宗 20년(光緖九年本, 1883) 기타 고종 43년 寶祐四年本이 있었다고 한다. 기타 李能和의 燉煌寫本(1939)을 비롯하여 한글번역본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심재열,『譯註 六祖壇經』, 선문출판사, 1986, pp.31-32.

8) 위의 책, p.413.

9) 김호귀,『육조대사법보단경요해』, 정우서적, 2012.

연유, 『단경』을 수행의 지침서로 삼은 것, 대각교의 소의경전으로 삼은 것 등을 엿볼 수가 있다.

첫째 단락에는 용성이 1879년 16세 때 해인사로 출가한 것을 비롯하여 한 벌의 납의를 지닌 한 납자로 여러 곳으로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구도 행각을 한 면모가 드러나 있다. 둘째 단락에는 21세 되던 1884년(대각응세 2910) 초파일에 경기도 양주군 고령산 보광사(普光寺)에서 『단경』을 만난 인연이 드러나 있다. 셋째 단락에는 『단경』을 선지식으로 삼아 수행했음을 짐작해볼 수가 있다. 넷째 단락에는 대각교에서 근본적인 경전으로 『단경』을 선택하였고, 그 『단경』을 통하여 중생제도의 원력을 지향하기 위하여 한글로 번역한 까닭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본 『단경』은 용성에게 있어서 수행의 지침이었고, 선지식이었으며, 용성이 추구하는 대각교의 근본적인 이념이었고, 중생교화의 방편이기도 하였기에 번역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둘째는 전반적으로 덕이본 『단경』(1291)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를 내용에 따라서 기존의 10분과에 변형을 가하여 용성 나름의 13분과를 언급하고 있다. 용성이 새롭게 제시한 과분을 『각해일륜』의 목록(부륙조단경)과 본문(각해일륜권지사 覺海日輪卷之四)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표1>과 같다.

<표1>

목록	본문
첫채 번역 리유를 설명	첫채는 단경을 역술하여 본교에 전도과로 한 리유를 설명함
둘채 륙조성사의 역사	둘채는 육조성사께서 법을 받으신 역사
셋채 반야경 제목을 강론하난 것	셋채는 마하반야경 제목을 강논
넷채 공덕과 복덕이 달은 것	넷채는 공덕과 복덕이 달음을 설명
다섯채 안락국토를 문난 것	다섯채는 안락세게가 잇느냐 업느냐 하는 것

여섯채 뎡혜가 하나인 것	여섯채는 정과 혜가 일체(定慧一體)
일굽채 공부하난대 용심하난 것	일굽채는 심공하는데 용심하는 것
여들채 오분법신향을 전수하는 것	여들채는 오분법신향을 전수하는 것
아홉채 무상참회를 주난 것	아홉채는 무상참회(無相懺悔)를 주는 것
열채 사홍서원을 발하난 것	열채는 네 가지 큰 서원을 발하는 것
열한채 삼신일체를 설명하난 것	열한채는 삼신이 일체임을 설명
열둘채 정사가 도를 뭇난 것	열둘채는 몯은 근숙정사(根熟正士)들이 참청(叅請)하는 것
열셋채 성사의 열반하시난 것	열세채 성사의 열반하시난 것

위의 분과는 기존의 덕이본『단경』의 분과와 비교하면 과분의 숫자, 과분의 명칭 등을 상당히 변형시킨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덕이본『단경』의 분과는 오법전의제일(悟法傳衣第一), 석공덕정토제이(釋功德淨土第二), 정혜일체제삼(定慧一體第三), 교수좌선제사(敎授坐禪第四), 전향참회제오(傳香懺悔第五), 참청기연제육(參請機緣第六), 남돈북점제칠(南頓北漸第七), 당조징조제팔(唐朝徵詔第八), 법문대시제구(法門對示第九), 부촉유통제십(付囑流通第十)인데, 이 가운데 법문대시제구의 대목이 용성의 번역에는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

『륙조대사요역』의 본문배열을 덕이본『단경』과 비교해보면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여섯 가지이다. 하나는『요역』의 처음에『단경』을 역술한 이유를 두고 있다. 둘은 덕이본『단경』의 법문대시제구에 해당하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셋은 오법전의제일을 육조성사께서 법을 받으신 역사와『마하반야경』제목을 강논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넷은 석공덕정토제이를 공덕과 복덕의 차이 및 안락세계의 유무의 둘로 나누었다. 다섯은 전향참회제오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류하여 오분법신향, 무상참회(無相懺悔), 사홍서원, 삼신의 일체 등 네 가지 문으로 분류하였다. 여섯은 '열둘채는 모든 근숙정사들이 참청하는 것'의 대목에다 덕이본『단경』의 참청기연, 남돈북점, 당조징조의 세 품의 내용을 발췌하여 포함

시켰다. 이들의 상호 관계를 도표로 보이면 <표2>와 같다.

<표2>

덕이본『단경』	『륙조단경요역』
	첫채는 단경을 역술하여 본교에 전도과로 한 리유를 설명함
오법전의제일	둘채는 육조성사께서 법을 받으신 역사
	셋채는 마하반야경 제목을 강논
석공덕정토제이	넷채는 공덕과 복덕이 달음을 설명
	다섯채는 안락세계가 잇느냐 업느냐 하는 것
정혜일체제삼	여섯채는 정과 혜가 일체(定慧一體)
교수좌선제사	일굽채는 심공하는데 용심하는 것
전향참회제오	여들채는 오분법신향을 전수하는 것
	아홉채는 무상참회(無相懺悔)를 주는 것
	열채는 네 가지 큰 서원을 발하는 것
	열한채는 삼신이 일체임을 설명
참청기연제육 남돈북점제칠 당조징조제팔	열둘채는 몯은 근숙정사(根熟正士)들이 참청(叅請)하는 것
부촉유통제십	열세채 성사의 열반하시난 것

이처럼 용성은『륙조단경요역』에서 전체의 분과를 덕이본『단경』의 분과와 비교하여 나름대로 변형시켰다.

한편 이미 재배열한 가운데도 덕이본『단경』의 본문과 대조해보면, 몇 대목을 덧붙이기도 하고, 몇 단락을 생략하기도 하는 등『요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가감을 하면서 내용을 재배치하였다.

③ 셋째는 기존의 내용에 대하여 첨삭을 하였다. 첨가한 대목은 모두 여섯 군데에 해당한다.

하나는 서두의 '첫채는 단경을 역술하여 본교에 전도과로 한 리유를 설명함'의 단락이다.[10] 이 대목은 위의 ① 단락에서 언급한 내용에 해

10)『총서』, p.615.

당한다. 둘은 풍동번동(風動幡動)의 내용에 대하여 용성 자신이 코멘트를 붙인 단락이다.[11] 셋은 정혜일체의 단락에서 정과 혜에 대하여 이끄는 말을 붙인 단락이다.[12] 넷은 혜능이 법해(法海)와 만난 기연을 다루는 대목에서 전념(前念)과 후념(後念)에 대하여 코멘트를 붙인 단락이다.[13] 다섯은 혜능이 지통(智通)과 만난 기연을 다루는 대목에서 전식득지(轉識得智)에 대하여 三身을 결부시켜 코멘트한 단락이다.[14] 여섯은 행창에게 불성시상(佛性是常)의 내용을 설해주는 대목에 대하여 용성이 코멘트를 붙인 단락이다.[15]

그리고 생략한 대목은 '셋채는 마하반야경 제목을 강논'의 대목에서 "이 가운데 있는 법문은 중첩되기 때문에 번역을 생략한다."[16]고 언급한 대목이다. 여기에 생략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지식들이여, 만약 심심한 법계 및 반야삼매에 들어가려는 자는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하는데『금강반야경』을 지송하면 곧 견성을 터득한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곧『금강반야경』의 공덕은 무량하고 무변하다고 경문에서 분명히 찬탄하는데,[17]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금강반야경』은 최상승 법문으로서 大智人을 위한 법문이고 上根人을 위한 법문이다. … 삼세제불의 십이부경이 사람의 성품속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건만 스스로 깨치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가르침을 추구해야 바야흐로 볼 수가 있다. 만약 스스로 깨친 사람은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만약 오로지 다른 선지식을 통해서만 바야흐로 해탈을 터득한다고 국집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왜냐하면 自心 안에 선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잘못된 미혹을 일으키고 망념으

11)『총서』, pp.623-624.
12)『총서』, p.632.
13)『총서』, p.640.
14)『총서』, pp.644-645.
15)『총서』, p.656.
16)『총서』, p.627. "此中法門重疊故除譯"
17) 鳩摩羅什 譯,『金剛般若波羅蜜經』(大正藏8, 750하-751상)

> 로 전도되면 밖의 선지식이 제아무리 가르쳐주어도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바르고 참된 반야를 일으켜 관조하면 일찰나에 망념이 모두 사라진다. 그러므로 만약 자성을 알아서 대번에 깨치면 곧 불지에 도달한다.[18]

'열셋채 성사의 열반하시난 것'에서 "이상의 번역을 생략한다."[19]고 코멘트하여 생략한 대목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 혜능대사는 7월 8일에 홀연히 문인들에게 말했다. "나는 신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러니 그대들은 어서 가는 배편을 준비하거라." … 대중들이 또 물었다. "정법안장은 누구한테 부촉하는 것입니까." 조사가 말했다. "깨친 자는 얻고 무심한 자는 통한다.[20]" … 대중들이 물었다. "지금까지 부처님과 조사들께서 세상에 출현한 이래로 몇 대를 전수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 후대의 미혹한 사람이 만약 자신이 중생인 줄 알면 그것이 곧 불성이지만, 만약 자신이 중생인 줄 모르면 만 겁토록 부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나는 지금 그대들한테 自心의 중생을 알라고 가르치고 自心의 불성을 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 만약 그대들의 마음이 비뚤어지고 왜곡되면 곧 부처가 중생속에 숨어 있지만 찰나만이라도 평직하면 곧 그 중생이 그대로 부처가 된다. 자기의 마음에 본래부터 부처가 들어있으므로 자기의 부처야말로 곧 眞佛이다.[21] 그 때문에 만약

---

18) 『慧能硏究』, pp.314-318, "善知識 若欲入甚深法界及般若三昧者 須修般若行 持誦金剛般若經 卽得見性 當知此經功德無量無邊 經中分明讚歎 莫能具說 此法門是最上乘 爲大智人說 爲上根人說 … 三世諸佛 十二部經 在人性中本自具有 不能自悟 須求善知識 指示方見 若自悟者 不假外求 若一向執謂須他善知識方得解脫者 無有是處 何以故 自心內有知識自悟 若起邪迷 妄念顚倒 外善知識雖有敎授 救不可得 若起正眞般若觀照 一刹那間 妄念俱滅 若識自性 一悟卽至佛地"

19) 『총서』, p.660, "已上略釋"

20) '깨친 자는 얻고 무심한 자는 통한다.'는 말은 자성의 도리를 깨친 자는 정법안장을 얻고 일체법에 분별심이 없는 자는 정법안장에 통한다는 말이다.

21) 自佛是眞佛은 자성불을 천진불로 간주하는 것은 本來成佛을 바탕으로 하는 祖師禪의 입장이다. 특히 혜능은 이 自性法門에 투철하여 발심하고 수

> 자기한테 불심이 없다면 어디에서 진불을 찾겠는가. 그대들의 자심이 곧 부처인 줄을 다시는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 밖에는 어떤 법도 건립할 수가 없다. 모두 곧 본심에서 온갖 종류의 법이 생겨난다. 그 때문에 경전에서는 "마음이 발생하니 갖가지 법이 발생하고 마음이 소멸하니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22]

여기에는 전등사서로서『단경』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의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법안장을 부촉하는 대목이 생략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칠불의 명칭 그리고 서천 28대 조사의 명칭, 동토의 6대 조사의 명칭 등 전법계보에 대한 대목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 이들 소위 과거칠불과 삼십삼조사의 명칭을 나열한 것은 중국선종사의 문헌 가운데 돈황본『단경』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성은 이 대목을 누락시켰다.[23] 이들 부처와 조사의 40대 계보는 이후 중국의 선종 가운데 소위 남종이 정통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중요하게 전승되었다.

행하며 깨치고 교화하며 전승하였다. 天親 造,『金剛般若論』卷上(大正藏 25, 784중), "응신과 화신은 진불도 아니고, 또한 설법하는 사람도 아니네. 설법을 취함도 설함도 못함은, 설법의 언상 초월한 까닭이네. 應化非眞佛 亦非說法者 說法不二取 無說離言相" 참조.

22)『慧能硏究』, pp.380-385, "大師 七月八日 忽謂門人曰 吾欲歸新州 汝等速理舟楫 … 又問曰 正法眼藏 傳付何人 師曰 有道者得 無心者通 … 問曰 未知從上佛祖 應現已來 傳授幾代 願垂開示 … 後代迷人 若識衆生 卽是佛性 若不識衆生 萬劫覓佛難逢 吾今敎汝 識自心衆生 見自心佛性 … 汝等心若險曲 卽佛在衆生中 一念平直 卽是衆生成佛 我心自有佛 自佛是眞佛 自若無佛心 何處求眞佛 汝等自心是佛 更莫狐疑 外無一物而能建立 皆是本心生萬種法 故經云 心生種種法生 心滅種種法滅"

23) 혜능을 제삼십삼조로 간주하는 경우는 과거칠불은 별도로 치고 마하가섭으로부터 혜능에 이르는 계보를 가리킨다. 돈황본『단경』에서는 과거칠불을 포함하여 혜능을 제40대 조사로 간주한다.『南宗頓敎最上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六祖惠能大師於韶州大梵寺施法壇經一卷』(大正藏48, 344중-하), "初傳受七佛 釋迦牟尼佛第七 大迦葉第八 弘忍第三十九 惠能自身當今受法第四十" 참조.

또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중도의 법문을 설법한 법문대시제구에 해당하는 삼십육대법(三十六對法)에 대한 내용은 아예 통째로 생략해버리고 번역을 수록하지 않았다. 여기에 생략된 내용의 대강은 덕이본 『단경』에서 법해, 지성, 법달, 신회,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등 10제자에게 중도의 법문으로 삼과법문(三科法門) 및 동용삼십육대(動用三十六對)를 제시한 내용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삼과법문,[24] 동용의 삼십육대,[25] 출 · 몰[26] 및 즉(卽) · 리(離)의 양변[27] 등을 들어서 일체법을 설하는 경우에 결코 자성을 벗어나지 말라. 말하자면 누가 그대한테 교법을 물으면 언제나 상대적인 법을 내세워 모든 경우에 상대적인 입장에서[雙] 답변해야 한다. 그러면 오고 감이 서로 인유(因由)하여 구경에 상대적인 두 가지 법이 모두 사라져서 더 이상 나아갈 것이 없다. … (중략) … 이 36대법에 대하여 그 작용을 잘 이해하면 일체의 경법에 관통한다. 출 · 입 및 즉 · 리의 양변은 자성의 동용으로서 남과 더불어 이야기할 경우 밖으로는 상(相)에 대하여 상(相)을 벗어나고 안으로 공(空)에 대하여 공(空)을 벗어나야 한다. 만약 그대로 상에 집착하면 곧 사견이 증장하고, 만약 그대로 공에 집착하면 곧 무명(無明)이 증장한다."[28]는 대목에 해당한다.

---

24) 羅什의 번역으로는 陰·入·界이고, 玄奘의 번역으로는 五蘊 · 十二處 · 十八界이다.

25) 상대적인 사고유형을 36종류로 언급한 것이다. 動用은 자성의 動用으로서 주체적인 작용을 말한다. 『祖堂集』 卷18의 仰山章, (高麗藏45, 349中-下)에 그 일단이 엿보인다.

26) 出沒은 十八變化 가운데 하나로서 다음 18종 가운데 (6-2)의 此沒彼出에 해당한다. 『涅槃經』에서 말한 八自在 또는 八神變을 다음과 같이 18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1) 能小, (2) 能大, (3) 能輕, (4) 能自在, (5) 能有主, (6) 能遠至: (6-1) 飛行遠至, (6-2) 此沒彼出, (6-3) 移遠而近 不往而到, (6-4) 於一念徧到十方, (7) 能動: (7-1) 動, (7-2) 涌, (7-3) 震, (7-4) 擊, (7-5) 吼, (7-6) 爆, (8) 隨意.

27) 出 · 沒 및 卽 · 離는 離·微와 마찬가지로 肯定 · 不定, 一·異, 去·來, 生 · 滅, 斷 · 常 등의 대립적인 관계성을 가리킨다.

④ 넷째는 본문의 순서를 재배열하였다. 이것은 ②에서 분과를 변형한 것과 관련이 깊다.

하나는 오법전의제일의 대목에서 『마하반야경』이라는 제목에 대한 설명을 다른 분과로 독립시켜 '셋채는『마하반야경』 제목을 강논'의 분과로 삼았다. 이것은『단경』이『금강반야경』과 사상적으로 관련이 깊은 점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보본『단경』에서 반야제이(般若第二)로 분류한 것[29]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둘은 석공덕정토제이의 대목에서 달마와 양 무제의 문답은 '넷채는 공덕과 복덕이 달음을 설명'으로 분과하였고, 정토세계의 유무에 대한 의문은 '다섯채는 안락세계가 잇느냐 업느냐 하는 것'의 분과를 따로 설정하였다. 덕이본『단경』 및 종보본『단경』에서는 자사(刺史) 위거(威璩)가 혜능에게 질문한 내용으로 설정된 세 가지, 곧 하나는 달마와 양 무제의 문답, 둘은 정토세계의 유무, 셋은 재가인의 수행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은 전향참회제오의 대목에서 오분법신에 대해서는 '여들채는 오분법신향을 전수하는 것'으로 분과를 독립시켰고, 무상참회에 대해서는 '아홉채는 무상참회(無相懺悔)를 주는 것'으로 분과를 독립시켰으며, 사홍서원에 대해서는 '열채는 네 가지 큰 서원을 발하는 것'으로 분과를 독립시켰고, 삼신에 대해서는 '열한채는 삼신이 일체임을 설명'의 분과를 독립시켰다.

넷은 교화참청기연제육과 남돈북점제칠과 당조징조제팔에서 혜능이 교화한 제자를 모두 묶어서 '몯은 근숙정사(根熟正士)들이 참청(叅請)하는 것'의 한 분과로 삼았다. 여기에서 교화한 제자는 무진장니(無盡藏尼), 법해(法海), 법달(法達), 지통(智通), 지상(智常), 지도(志道), 행사(行

28) 『慧能研究』, p.370, "先須擧三科法門 動用三十六對 出沒卽離兩邊 說一切法 莫離自性 … 此三十六對法 若解用 卽道 貫一切經法 出入卽離兩邊 自性動用 共人言語 外於相離相 內於空離空 …."

29) 『六祖大師法寶壇經』「般若第二」(大正藏48, 350상-351하)

思), 회양(懷讓), 영가현각(永嘉玄覺), 지황(智隍), 지성(志誠), 장행창(張行昌 곧 志徹), 신회(神會), 설간(薛簡) 등14인에 대한 기연어구를 수록하였다.[30] 이 가운데 첫번째의 무진장니부터 열 번째의 지황까지는 교화참청기연제육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열한 번째의 지성부터 열세 번째의 신회까지는 남돈북점제칠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마지막 열네 번째의 설간은 당조징조제찰에 해당하는 기록에 속한다. 그리고 교화참청기연제육의 기록 가운데서 어떤 승과 문답한 황매의 불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떤 승과 문답한 와륜선사의 게송에 대한 기록 등 두 가지 대목은 생략되어 있다.

⑤ 다섯째는 용성의 『륙조단경요역』은 『단경』의 원문을 생략하고 순한글 위주로 번역한 것으로는 그 시초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용성 나름대로 덕이본 『단경』의 내용을 생략하기도 하고, 몇 군데에는 자신의 견해를 주해의 성격으로 덧붙여서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많은 판본과 더불어 새롭게 용성본 『단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Ⅲ. 『단경』에 대한 주해 내용

용성은 『륙조단경요역』에서 단순히 번역으로만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제명에서 '요역(要譯)'이라고 하였지만, 그 가운데는 순수한 번역 이외에도 몇 개의 단락에 대해서는 『단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심화시켜 이해하고, 그것을 용성 자신의 견해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제 몇몇 대목에 대하여 용성이 보여준 주해에 따른 견해의 특수한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는 주로 구성 형식과 관련한 주제였던 점에 비하여, 여기에서는 주제의 성격상 주해 내용의 이해에 따른 것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30) 『총서』, pp.639-659.

『단경』의 본문에 대하여 용성이 피력한 그 자신의 독특한 주해를 새롭게 첨가한 다섯 가지의 대목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단경』의 내용에 대하여 용성은 몇 가지 대목에 대하여 때로는『단경』의 인용문에 의거하여 주해하고, 때로는『단경』의 인용문과 유관한 별도로 주해를 가한 대목이 엿보인다. 그 첫째는 '둘째는 육조성사께서 법을 받으신 역사' 대목에서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에 대한 오조홍인의 전법게송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유정(有情)이 와서 종자(種子)를 나리면
> 인(因) 땅에 과(果)가 나는도다
> 무정(無情)은 종자가 업는 것이라
> 성품도 없고 또한 생(生)할 것도 없도다[31]

용성은 이 대목에 대하여 "이것은 현상[事]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32]는 자신의 견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또 정(情)도 없고 종자도 없은니 성품도 안이요 또한 나는 것도 없도다."[33]는 내용을 첨가하고, 여기에다 "이것은 이(理)를 잡아 분석하노라."[34]라고 주해를 붙였다. 원문에서 "이것은 일을 잡아 분석하노라"는 것은 "이것은 이(理)를 잡아 분석하노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용성은 유정과 무정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유정과 무정을 모두 초월한 입장을 각각 불성에 대한 사(事)와 이(理)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게송은 홍인이 혜능에게 조실로 불러서 법을 설해주고 깨침을 인가하여 제육대조사로 삼은 자리에서 전법게송으로 제기한 것이다.

---

31)『총서』, p.620.
32)『총서』, p.620.
33)『총서』, p.620.
34)『총서』, p.620.

> 이에 조사께서는 혜능에게 돈교와 의발을 전수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를 제육대 조사로 삼는다. 그러므로 잘 호념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장래에 유포시켜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 이에 내가 주는 전법게를 듣거라."35)

돈교는 보리달마로부터 단전직지(單傳直指)의 형식으로 전승된 조사선법을 가리킨다. 그리고 전법게는 전등의 조사가 서로 가사와 발우와 전법게를 통하여 정법안장을 수수(授受)한 것을 가리킨다. 이 전법게송에서 유정은 혜능을 가리키는데, 숙업으로 인연을 지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현생에 홍인을 만나 과보를 맺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숙업의 인연이 없었다면 오늘의 과보도 없었을 것이고, 자성을 말미암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깨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 무정은 북종의 조사로 간주되는 대통신수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게송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리니, 땅을 인하여 열매가 열리네. 사람이 없으면 씨앗도 없어, 성품도 없고 생겨남도 없네."라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혜능의 경우에 이미 구비되어 있는 자성이 깨침의 시절인연이 도래하자 결과를 맺었다는 내용이다.

그 둘째는 인종법사를 만나게 된 기연이 되었던 풍동번동심동(風動幡動心動)의 일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객이 문왈, 그 뜻은 심히 깊푸으니 엇더케 해득할고. 룡성이 답왈, 바람이 동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뜻은 바람성품은 법여시 동하는 것이라, 번이 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니, 이 사람은 셩(性)에 집착된 것이오. 또 번이 동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뜻에는 번이 없으면 동하는 표시가 없는 것이라 함이니, 이 사람은 번상(幡相)에 집착된 것이니라. 성사게서 번과 바람이 동한 것이 아니라 하시는 말심은 바람과 번을 내노코 따로 마음이 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 동하는 것이 곧 마음이 동한 것이요, 번 동하

35) 『慧能硏究』, p.286, "便傳頓敎及衣**缽**云 汝爲第六代祖 善自護念"

는 것이 곧 마음이 동하는 것이라. 삼계전체(三界全體)가 유심대광명체(唯心大光明體)가 동한 것이라 하는 말심이니라.[36]

이 대목은 덕이본『단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느 날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법을 펼칠 때가 왔다. 더 이상 숨어 살 수가 없다." 그리고는 마침내 광주 법성사에 나아갔는데 마침 인종법사가『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펄럭였는데 한 승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말하고, 또 한 승은 깃발이 펄럭인다고 말했다. 논의가 끝나지 않자 혜능이 나서서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37]

여기에서 법성사(法性寺)는 양(梁)나라 말기에 진제삼장이 건립한 것이다. 광주(廣州) 법성사가『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774)의 기록에는 해남(海南) 제지사(制旨寺)이고,『조계대사별전(曹溪大師別傳)』(781)의 기록에는 광주 제지사(制旨寺)이다. 당 정관 19년(645) 제지왕원사(制旨王園寺)를 개명하여 건명법성사(乾明法性寺)라고 했으므로 제지사(制旨寺)와 법성사(法性寺)는 동일한 사찰이다. 후에는 숭녕만수선사(崇寧萬壽禪寺), 보은광효선사(報恩光孝禪寺), 광효사(光孝寺)라고도 불렸다. 중종 때는 중흥사(中興寺) 또는 용흥사(龍興寺)라고도 불렀다. 후에 종보가 주석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종법사는 오군(吳郡) 출신으로 속성은 인(印)씨이고 정관 원년(627)에 태어났다. 출가하여 경전에 해박하였는데 특히『열반경』에 정통하였다. 오조홍인에게 참문하였는데, 의봉 원년(676) 55세 때 혜능을 만나 깨쳤다. 이후에 칙명을 받고 입내설법(入內說法)을 하였다. 양대(梁代)부터 당대(唐代)까지의 선사들의 법어를 모은

36)『총서』, pp.623-624.

37)『慧能硏究』, p.290, "一日思惟 時當弘法 不可終遯 遂出至廣州法性寺 値印宗法師講涅槃經 時有風吹幡動 一僧曰風動 一僧曰幡動 議論不已 慧能進曰 不是風動 不是幡動 仁者心動 一衆駭然"

『심요집(心要集)』을 저술하였고, 율장에도 정통하여 도안(道岸: 654~717)에게 계를 받고, 계단(戒壇)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을 득도시켰는데, 선천 2년(713) 87세로 입적하였다.

또한 이 문답의 주제로 되어 있는 성은 『열반경』에서 말하는 불성을 가리킨다. 이것은 달마로부터 육조혜능에 이르기까지 소위 초기선종 시대에는 『능가경』을 비롯하여 『화엄경』·『유마경』·『법화경』·『반야경』·『열반경』 등이 중시되었다. 특히 사조도신(四祖道信: 582-651)은 『반야경』을 중시하였고, 오조홍인(五祖弘忍: 601-674)은 『금강경』과 『열반경』을 중시하였다. 여기에서 불성이 논쟁의 주제로 등장한 것은 홍인의 제자였던 인종은 『열반경』의 연구자로서 이름이 높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불성의 작용을 주제로 토론을 제기하게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바람과 깃발의 움직임에 대한 논쟁의 실마리는 일찍이 서천의 제18조 가야사다장(伽倻舍多章)에 유사한 문답이 보인다.

> 어느 땐가 바람이 불어오자 풍경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존자가 가야사다[師]에게 물었다.
> "풍경이 울리는 것인가, 바람이 울리는 것인가." 가야사다[師]가 말했다.
> "바람도 아니고 풍경도 아닌 저의 마음이 울릴 뿐입니다." 존자가 말했다.
> "그렇다면 그 마음이란 또 무엇인가." 가야사다[師]가 말했다. "(바람과 풍경과 마음이) 모두 본래부터 적정[삼매]입니다."38)

기존의 이와 같은 이해와 달리 여기에서 용성의 견해는, 바람이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풍성(風性)에 대한 집착이고, 깃발이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깃발의 相에 집착하는 것이며, 육조가 말한 '비풍

38) 『景德傳燈錄』 卷2(大正藏51, 212중), "他時聞風吹殿銅鈴聲。尊者問師曰。鈴鳴耶風鳴耶。師曰。非風非鈴我心鳴耳。尊者曰。心復誰乎。師曰。俱寂靜故"
『寶林傳』 卷3(宋藏遺珍2, 台北市: 新文豊出版公司, 1978, 1252하-1253상) 참조.

동(非風動) 비번동(非幡動) 여심동(汝心動)'은 바람과 깃발을 벗어나서 따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용성은 삼계가 모두 유심대광명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주해에는 용성이 성(性)의 측면을 심(心)의 측면으로 바꾸어 이해한 견해가 드러나 있다.

그 셋째는 '여섯채는 정과 혜가 일체(定慧一體)'의 대목에서는 용성은 우선 定과 慧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룡성왈, 심디가 일정 부동(不動)하야 산란심이 없는 것을 정(定)이라 하고, 심디가 어리석지 아니하야 지혜가 원명한 것을 혜라 하나니, 후래학자는 이와 같이 미루어 볼지어다[39]

이 대목은 덕이본『단경』의 정혜일체제삼에서 정과 혜에 대한 정의를 일러준 대목과 관련이 깊다. 혜능은 정과 혜의 관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 나의 이 법문은 선정과 지혜가 근본이다. 대중들이여, 어리석게도 선정과 지혜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선정과 지혜는 일체(一體)로서 둘이 아니다. 선정은 곧 지혜의 본체이고 지혜는 곧 선정의 작용이다. 다만 지혜 자체를 따를 때는 선정이 지혜에 있고 선정 자체를 따를 때는 지혜가 선정에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뜻을 이해하면 곧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닦게 된다.[40]

여기에서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간주하는 정혜일체(定慧一體)는 수증일여(修證一如)를 설파했던 혜능사상의 특징이기도 한데, 혜능은 선정

39)『총서』, p.632.

40)『慧能硏究』, p.293, "我此法門 以定慧爲本 大衆 勿迷言定慧別 定慧一體 不是二 定是慧體 慧是定用 卽慧之時定在慧 卽定之時慧在定 若識此義 卽是定慧等學"

과 지혜의 관계에 대하여 선정에서 지혜가 발생한다는 소위 인도적인 발상을 바꾸어서 선정과 지혜의 일체(一體)로 간주하는 것으로 본래성불(本來成佛)에 바탕한 조사선(祖師禪)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마음이 균등하고 부동하여 산란하지 않는 경지가 定이고,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어서 지혜가 원명한 경지가 혜(慧)이므로 후래의 납자들은 이와 같이 정과 혜가 다르지 않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용성의 견해는 『단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특히 『단경』에서 모든 장소와 모든 경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말한 것을 피력한 것이다. 일행삼매에 대해서도 혜능은 기존의 천태학에서 말한 상좌삼매(常坐三昧)[41]의 의미와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 혜능은 이에 이어서 정혜등학(定慧等學)의 실천으로 일행삼매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일행삼매란 행 · 주 · 좌 · 와의 일체 경우에서 항상 한결같이 평직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명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직심을 유지하는 것이 곧 깨침이다. 평직심을 유지하는 것이 곧 정토이다.' 그러므로 결코 마음으로는 사특하면서 입으로만 무릇 평직심을 설한다거나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설하면서 평직심을 실천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릇 평직심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일체법에 대하여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法相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집착하는 까닭에 이에 항상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함부로 번뇌심을 일으키지 않는 그것을 곧 일행삼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자는 곧 무정물과 똑같아서 도리어 깨침의 인연에 장애가 된다.[42]

---

41) 『觀心論疏』 卷3(大正藏46, 600중), "第一常坐三昧者。出文殊說波若。亦名一行三昧。為三別。一事相。二觀法。三勸修"

42) 『慧能研究』, pp.293-294, "一行三昧者 於一切處行住坐臥 常行一直心是也 淨名經云 直心是道場 直心是淨土 莫心行諂曲 口但說直 口說一行三昧 不行直心 但行直心 於一切法勿有執著 迷人著法相 執一行三昧 直言常坐不動 妄不起心 卽是一行三昧 作此解者 卽同無情 卻是障道因緣"

곧 일행삼매는 사조도신이 제기한 선법의 중심이다.『문수설반야경(文殊說般若經)』과『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설명으로 천태의 사종삼매(四種三昧) 가운데 상좌삼매의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혜능은 일행삼매를『유마경』의 직심(直心)에 비추어서 일상적인 선법의 실천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그리고 평직심을 실천한다는 것은 행(行)·주(住)·좌(坐)·와(臥), 어(語)·묵(默)·동(動)·정(靜), 견(見)·문(聞)·각(覺)·지(知)의 일체 행위에서 평직심(平直心)을 유지하면서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43] 또한 법상(法相)에 집착한다는 것은 법의 사상(四相)인 유상(有相)·무상(無相)·법상(法相)·비법상(非法相)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용성이 말한 심지가 부동하여 산란심이 없는 것을 정(定)이라 하고, 심지가 어리석지 않아 지혜가 원명한 것을 혜라고 말한 것은 바로 정혜등학의 일행삼매가 실천되는 모습을 일러준 말이다.

그 넷째는 '열둘채는 몯은 근숙정사(根熟正士)들이 참청(叅請)하는 것'의 대목 가운데 법해(法海)에게 일러준 전념과 후념의 의미에 대하여 용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룡성왈, 압생각이 낮이 아니하면 몯은 법의 당처가 공적하여 일경히 동치 아니한 것이오, 뒤생각이 멸치 아니하면 각혜원명(覺慧圓明)한 것이니, 이것은 뎡에 즉한 혜라는 말이오, 또 일쳬상을 일운 것이 맘이라는 말은 압귀절을 뒤집어 놓은 말이니, 이것은 혜에 즉한 졍이라는 말이니라. 이것은 뎡혜로써 분석하엿거니와, 또 다시 한 뜻이 있으니 물이 곳 젓는 것이니, 마음 전체가 곳 각이라는 말이요, 젓는 것이 곳 물이니, 이것은 각의 전체가 곳 마음이라는 말이니라. 이 비유를 깾이면 범성을 물논하고 둘 업는 것을 요달하리라.[44]

43)『維摩詰所說經』卷上(大正藏14, 538상-중), "當知 直心是菩薩淨土
『維摩詰所說經』卷上(542하) "直心是道場 無虛假故" 참조.

44)『총서』, p.640.

이것은 법해가 즉심즉불(卽心卽佛)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답변한 내용에 해당한다. 육조는 “전념이 발생하지 않으면 곧 즉심이고, 후념이 소멸하지 않으면 곧 즉불이다. 일체상(一切相)을 성취하는 것이 즉심이고 일체상을 여의는 것이 즉불이다.”[45]고 답했는데, 이에 대하여 용성이 이해한 내용이 바로 위의 인용문이다. 육조는 “일체의 청정상을 성취하는 것이 즉심이고, 일체의 분별상을 벗어난 것이 즉불이다.”[46]고 답변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일체의 청정상과 분별상에 대하여 그것은 조작적인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그렇게 무념(無念)과 무심(無心)으로 현성되어 있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것이야말로 보리달마로부터 전승되어 온 본래성불 사상에 근거한 조사선의 가풍 그대로이다.

그러나 용성은 이 대목에 대하여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다. 첫째, 전념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법공적(諸法空寂)하여 부동한 것이고, 후념이 소멸하지 않으면 각혜원명(覺慧圓明)인데 이것은 정에 즉한 혜라고 말하고, 또 일체상을 성취한 것이 즉심이라는 것은 전구 곧 전념불생즉불(前念不生卽心)을 뒤집어 놓은 것이고, 일체상을 여읜 것이 즉불이라는 것은 후구 곧 후념불멸즉불(後念不滅卽佛)을 뒤집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혜에 즉한 정이라고 말한다. 둘째, 물은 적시는 것이라는 것은 즉심시불(卽心是佛)이고, 적시는 것이 물이라는 것은 불즉시심(佛卽是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한 전념은 분별심을 가리키고, 후념은 청정심을 가리킨다. 그래서 전념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불생(不生)이 되고, 후념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멸(不滅)이 된다. 이처럼 불생불멸이 되는 이치가 바로 즉심이 즉불이라는 것이다.

이 즉심즉불에 대하여 덕이본『단경』에서는 혜능이 정혜와 결부시켜

45)『慧能硏究』, p.336.

46)『慧能硏究』, p.336.

서 법해에게 게송으로 일러준 말에 잘 드러나 있다.

> “즉심의 경우를 지혜라 말하고
> 즉불의 경우를 선정이 말하네
> 선정과 지혜 평등하게 지니면
> 마음 그대로 청정한 경지라네
> 이러한 법문 깨치고 못깨침은
> 그대들의 자성에 달려 있다네
> 자성의 작용 본래 무생이지만
> 정혜를 골고루 닦아야 한다네”47)

정과 혜는 다름이 아니라 각각 즉불과 즉심인데, 정 곧 선정과 혜 곧 지혜를 평등하게 지니는 것이야말로 수행과 깨침의 완성을 말하는 청정한 경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 때문에 즉심과 즉불은 각각 지혜와 선정이면서 서로 전후의 관계가 아니라 본래무생의 자성이라는 것이다. 용성은 이와 같은 경지를 공적등지(空寂等持)이고 각혜원명(覺慧圓明)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다섯째는 지통이 질문한 사지(四智)에 대하여 육조가 답변해준 대목에 대한 용성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용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룡성왈, 제팔식을 굴리여 법신을 발명하고, 제칠식을 굴리여 보신을 발명하고, 제육식을 굴리려 화신을 발명하는 것이니라. 전오식(前五識)을 굴리여 대원경지(大圓鏡智)를 일운 것은 제팔식과 동체(同體)인 고로 별노 각립(各立)될 것이 업나니라. 삼신(三身)을 발명하면 사지(四智)가 되는 것이니, 별노히 분석할 것 없도다. 제팔식자체(第八識自體)가 허공과 같여 세게천디 만유(萬有)를 먹음어 잇는 것이니, 이 팔식을 굴리면 온전히 법신이 독노(獨露)하는 것이요, 칠식의 자체는 항심사량(七識自體恒審思量)하는 것이니, 이것을 굴리여 보신(報身)을 성취하는 것이요, 육식은 변사식(辨事

47) 『慧能研究』, p.337, “卽心名慧 卽佛乃定 定慧等等<持?> 意中淸淨 悟此法門 由汝習性 用本無生 雙修是正”

識)이라 하는 것이니, 이것을 굴리여 화신을 성취한 것이오. 제팔식이 오근문두(五根門頭)에 빛인 것이 전오식이니, 이 오식은 제팔식(五識與八識同體)과 동체인 고로 별노히 분석할 것이 업나니라.[48]

이것은 전식득지에 대한 것으로 유식종에서 말하는 네 가지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 불과에 이르러 유루의 심(心)과 팔식(八識)을 굴려서 터득하는 대원경지(大圓鏡智)는 대원경이 만물을 비추는 것처럼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비추어보는 지혜이다. 그 본체가 부동하여 기타 삼지(三智)의 근본이 된다. 자성의 본래지(本來智)로서 청정법신의 이체(理體)이고 자성법계의 공리(空理)이다. 제칠의 말나식(末那識)을 굴려서 터득하는 평등성지(平等性智)는 자타일체의 평등을 깨우쳐 대자비에 상응하는 지혜이다. 제육의 의식을 굴려서 터득하는 묘관찰지(妙觀察智)는 모든 대상을 걸림없이 관찰하여 모든 의심을 없애고 자유자재하게 설법하는 지혜이다. 전오식(前五識)을 굴려서 터득하는 성소작지(成所作智)는 오감각의 대상에 자재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방편을 통하여 갖가지 부사의한 행위와 사업을 실천하는 지혜이다.

위의 대목과 관련하여 덕이본『단경』에서는 지통이『능가경』의 삼신(三身)과 사지(四智)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에 혜능이 답변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혜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원경지는 그 자성 본래 청정하고
평등성지는 그 마음 본래 무병이네
묘관찰지는 그 견해 유루공능 없고
성소작지는 대원경지와 동일하다네[49]

이 대목에 대하여 덕이본『단경』에서는 “분별사식(分別事識)을 굴려

48)『총서』, pp.644-645.

49)『慧能研究』, p.351, “大圓鏡智性淸淨 平等性智心無病 妙觀察智見非功 成所作智同圓鏡”

서 무분별지(無分別智)로 삼은 것이다. 교학에서는 전오식을 굴려서 성소작지를 삼고, 제육식을 굴려서 묘관찰지로 삼으며, 제칠식을 굴려서 평등성지로 삼고, 제팔식을 굴려서 대원경지로 삼는다고 말한다. 비록 제육식과 제칠식은 인중(因中)에서 굴린 것이고, 전오식과 제팔식은 과상(果上)에서 굴린 것이지만, 단지 그 명칭만 굴린 것이지 그 본체는 굴려지지 않는다."[50]고 주해를 붙이고 있다. 이것은 대원경지의 속성을 법신의 속성과 관련하여 성(性)이 본래청정(本來淸淨)이라 하고, 평등성지의 속성을 심(心)이 본래무병(本來無病)이라 하며, 묘관찰지의 속성을 견(見)이 본래비공(本來非功)이라 하고, 성소작지의 속성을 다시 대원경지의 속성과 동일하다고 간주한 것에 대하여 용성이 붙인 주해이다.

이에 대하여 용성은 직접으로 제팔식은 법신이고, 제칠식은 보신이며, 제육식은 화신이고, 전오식은 다시 법신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전오식을 제팔식과 동일하게 간주한 것은 소위 전오식과 제팔식은 불과에 이르러 전식득지하는 것으로 성소작지와 대원경지를 성취하고, 제육식과 제칠식은 초지의 인위(因位)에서 전식득지하는 것으로 묘관찰지와 평등성지를 성취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용성이 사지를 삼신과 결부하여 이해한 것은『단경』에 근거한 것이다. 나아가서 제팔식을 굴려 법신을 이루고, 제칠식을 굴려서 보신을 이루며, 제육식을 굴려 화신을 이루고, 전오식을 굴려 대원경지를 이루는 까닭에 제팔식과 전오식은 동일하다고 말한 것은, 소위 청정법신은 자신의 자성이고, 원만보신은 자신의 지혜이며, 천백억화신은 자신의 일상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본성을 떠나서 별도로 삼신을 설한다면 그것은 곧 身은 있지만 智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일러준 것이다.

이처럼 용성은 다섯 군데에 걸쳐서『단경』의 중요한 대목마다 간추

50)『慧能硏究六』, p.351, "如上轉識**為**智也。**教**中云。轉前五識**為**成所作智。轉第六識**為**妙觀察智。 轉第七識**為**平等性智。 轉第八識**為**大圓鏡智。 雖六七因中轉。五八果上轉。但轉其名而不轉其體也"

려서 몸소 주해의 성격을 가미하여 본문의 내용을 이해시켜주고 있다. 이들 다섯 가지의 내용은 각각 유정무정의 불성에 대한 이해, 풍동과 번동과 심동의 인식에 대한 이해, 정혜 곧 수증에 대한 관계의 이해, 전념과 후념에 대한 번뇌와 보리의 관계에 대한 이해, 삼신과 사지에 대한 유식의 이해에 대하여 용성 자신의 견해를 보여준 것이다.

Ⅳ. 결어

위에서 고찰해본 것처럼 용성은 『요역』을 출간한 이유로서 많은 경론 가운데서도 특히 대각교의 근본적인 경전으로 『단경』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이 『륙조단경요역』은 제명에 보이듯이 전반적으로는 덕이본 『단경』에 의거해서 촬요하여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제명에서 '요역'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보면 단순히 한글의 번역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전체적인 구성 형식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단경』에 대하여 다섯 가지의 변형을 가하였고, 또한 주해 내용과 관련해서는 용성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첨가한 대목이 다섯 군데 보완되어 있다.

먼저 구성 형식에 있어서는 첫째, 처음 부분에 도입하는 대목을 설정하여 『륙조단경요역』을 번역한 대의에 대하여 일러두고 있다. 둘째, 본문의 내용에 대하여 새롭게 분과를 설정하였다. 셋째, 기존의 내용에 대하여 여러 군데에 걸쳐서 첨가와 생략을 가하였다. 넷째, 본문의 순서를 내용과 결부하여 재배치하였다. 다섯째, 원문을 전면적으로 생략하고 한글 위주의 번역본을 만들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하여 용성 자신의 주해를 새롭게 첨가한 대목에 있어서도 첫째는 유정과 무정에 대한 홍인의 전법게송에 대하여 사와 이의 측면으로 이해한 점, 둘째는 풍동과 번동과 심동의 문답에 대해서는 각각 성에 대한 집착과 상에 대한 집착과 본심에 대하여 이해할 것으

로 본 점, 셋째는 정혜에 대해서는 마음이 균등하고 부동하여 산란하지 않는 경지가 정(定)이고,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어서 지혜가 원명한 경지가 혜이므로 정과 혜가 다르지 않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 넷째는 전념과 후념을 즉심 및 즉불과 관련시켜 각각 혜에 즉한 정과 정에 즉한 혜로 이해하고 이것을 비유하여 물은 적시는 것이라는 것은 즉심시불이고 적시는 것이 물이라는 것은 불즉시심이라고 이해한 점, 다섯째는 삼신과 사지를 관련시켜 제팔식은 법신이고, 제칠식은 보신이며, 제육식은 화신이고, 전오식은 다시 법신이라고 설명한 점이 독특하다.

이처럼 한글의 번역을 기존의 덕이본『단경』에 의거하면서도 분과의 구성형식 및 용성 자신의 주해를 가미하여 순수한 번역본의 성격을 약간 변형시켰던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판본과 달리 일명 용성본『단경』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다.

참고문헌

『維摩詰所說經』, 大正藏14
『六祖大師法寶壇經』, 大正藏48
『景德傳燈錄』, 大正藏51
『覺海日輪』「륙조대사요역」, 『백용성대종사총서』 10, 원문 大覺思想(1), 백용성대종사총서간행회, 동국대출판부, 2016.
임도문 편주, 『각해일륜』, 불광출판부, 2004.
김지견 편, 『六祖壇經의 世界』, 민족사, 1989.
김호귀, 『육조대사법보단경요해』, 정우서적, 2012.
김호귀 역, 『육조대사법보단경』, 한국학술정보, 2015.
심재열, 『譯註 六祖壇經』, 선문출판사, 1986.
『慧能硏究』, 『慧能硏究』, 大修館書店, 1977.
신규탁, 「『六祖壇經』과 龍城禪師」, 『대각사상』 12집, 2009.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5집, 대각사상연구원,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Annotation of Yongsung-Jinjong *Rukjodangyeong-Yoyeok*

kim, Ho-gui
(Professor of Humanities Korea Project, Academy Buddhist Studies)

Yongsung-Jinjong published *Rukjodangyeong-Yoyeok* in Korean translation for traditional *Tánjing*(壇經). The title was *Yoyeok*, but it was not just a translation of Korean-language, but rather a text showing Yongsung's own unique views on several places in the text.

Yoyeok is divided into two parts: form and comment. Five modified forms were added to form, and five views were added to the aspect of comment.

The five forms are as follows: First, the beginning part was newly set up; second, the contents of the text were set to 13 paragraphs. Third, there are parts that add new contents to the existing contents, and there is part that omits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Fourth, the order of the text is related to the contents and rearranged accordingly. Fifth, the original text was omitted in full and a Korean-centered translation was made.

The fiv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te-life and inanimate-life is explained by dividing it into two parts. Second,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word that the wind moves, the flag moves, and the mind moves are the part that showed Yongsung's own view of performance and enlightenment. Third, Dhyāna and Prajñā are identical body, where Dhyāna means performance, and

Prajñā means enlightenment. Fourth, the previous and later thoughts are related to the mind and the Buddha, and they are compared with water. Fifth, the three bodies and four wisdoms were explained in relation.

Yongsung's Korean translation was based on *Tánjing*. However, the format for the paragraph, and Yongsung himself added annotations, created a personality that transcended pure translations. This is the important feature of Yongsung's *Rukjodangyeong-Yoyeok*.

Key words

Yongsung-Jinjong, *Rukjodangyeong-Yoyeok,* innated-mind, innated-Buddha, form and comment, he three bodies, four wisdoms

논문투고일 : '22. 09. 26. 심사완료일 : '22. 11. 23. 게재확정일 : '22. 11. 23.